

독재자 마오·덩·박정희... 영웅인가 반칙왕인가

행복한 책 읽기

파트릭 모디아노 '혈통'
(문학동네 펴)

권력은 총구에서 나왔다

박형기 지음

제목부터 시선을 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왔다'. 사실 '권력' '총구'가 상징하는 의미는 그리 간단치 않다.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의미심장한 단어다.

광주일보 기자 출신 박형기 씨가 펴낸 '권력은 총구에서 나왔다'는 동북아시아 영웅 3인의 인생 역정을 탐해보는 시간 여행이다. 저자는 '브릭스'(브라질 Brazil, 러시아 Russia, 인도 India, 중국 China의 합성어)와 '진디아'(중국 China와 인도 India의 합성어) 개념을 국내에 처음 소개하는 등 국제문제에 천착해온 전문가다.

그렇다면 저자가 보는 영웅 3인은 누구



개혁개방으로 돈 벌게 해 준 덩샤오핑보다

중국인들은 체면 살려준 마오쩌둥 더 좋아해

박정희 평가 '국제적 시각'으로 객관화 해야

인가. 중국혁명의 마오쩌둥, 개혁개방의 덩샤오핑, 한국 유신의 박정희를 지칭한다. 이들은 무력으로 정권을 잡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신중국을 건설한 마오쩌둥은 집권 후 수 천만 명을 아사(餓死)시키는 등 실정을 거듭했다. 그럼에도 중국인들은 개혁개방으로 배고픔을 면하게 한 덩샤오핑보다 마오쩌둥을 좋아한다. 왜일까? 저자는 중국 취재여행 중에서 의문을 풀 수 있었다. 그것은 "덩샤오핑은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해주

었다. '마오주시(毛主席), 그들은 반드시 이렇게 부른다'는 우리의 체면을 살려주었다. 돈은 언제라도 벌 수 있지만 한번 깎인 체면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다"는 말을 듣는다고 한다.

물론 덩샤오핑도 중국인들에게 '추앙받는다' 지도자다. 개혁 개방으로 중국을 미국에 위협하는 유일한 나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돈'을 '자존'보다 앞세웠던 탓에 마오쩌둥에는 미치지 못하는 평가를 받는다.

저자는 (다른 많은 이들과) 한국의 박

정희도 덩샤오핑처럼 국민들을 먹고 살게 했다는 점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조국을 근대화한 능력 있는 정치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했고 헌정질서를 유린했으며 유신이라는 '제2쿠데타'를 단행한 면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가한다.

"그동안 산업화 세력은 박정희를 미화해 왔고, 산업화 세력으로부터 탄압을 받던 민주화 세력은 박정희의 경제 개발 업적을 애써 무시해 왔다. 이에 따라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 진영논리의 틀에 갇혀 박정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자는 국제적 시각으로 박정희를 재평가해 보는 것이 박정희를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을 했다."

〈알림·1만6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섬, 짓하다=역사적 사실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결합, 현대적인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데 능력을 발휘해온 김재희 작가의 장편소설. 기존 작품과는 달리 현대를 배경으로 한 범죄소설이다. 성형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여성이 '주간과'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공격 대상이 되고, 급기야 자신의 집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한다. 경찰은 당시 CCTV에 촬영된 영상을 근거로 주간과 회원인 16세 남학생 준희를 용의자로 지목한다. 〈시공사·1만3000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한 작가의 배움과 수련=고전 천천히 읽기 시리즈.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프루스트의 대표작이자 그가 남긴 유일한 소설이다. 4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대작일 뿐만 아니라, 하얗게 이어지는 기나긴 문장으로 웅변한 독자들에게도 난독증을 유발한다. 저자 오스틴은 프루스트가 작가의 길을 결



심하고 진지하게 붙든 물음들을 똑같이 붙들고 프루스트가 찾아나선 길을 안내한다. 〈작은길·1만6000원〉

▲대통령과 종교=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대통령의 종교 성향과 재임 기간 있었던 종교적 사건, 종교 편향 논란 등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국가권력과 종교가 어떻게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는지 살펴본다. 김영삼 장로 대통령과 이명박 장로 대통령에서 보듯이, 개신교는 기독교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개신교 130년의 역사는 그야말로 '성장의 압축판'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은 상당히 정치적

이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인물과 사상사·1만5000원〉

▲하루 한 편 떠먹는 삼국유사=암흑 같았던 우리의 상고시대 역사를 밝힌 등대 같은 사서 '삼국유사'. '삼국유사'의 수집 자료는 저자 일일이 평생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보고 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책은 제1부 '삼국유사 이야기 편', 제2부 '삼국유사 정리 편', 제3부 '삼국유사 심화편'으로 구성됐다. 청소년은 물론 이거니와 일반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다. 〈화담출판사·1만5000원〉

▲노면 빈센트 필의 긍정적 사고방식=

동기부여 연설가 노면 빈센트 필 박사의 책. 저자는 60년 동안 목사로 사역하면서 실제로 경험하고 들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자신을 믿는 법, 자신감을 키우는 법, 우울에서 벗어나는 법, 남의 호감을 사는 법 등과 같은 실생활과 밀접한 17개의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더 평화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세종서적·1만4000원〉

▲본단-통일에서 분리-통합으로=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기반으로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분단민족의 입장에서 '분단-통일'의 개념을 당연하게 사용해왔다. 그러나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당위적인 차원을 넘어서 경제적·안보적·정치적으로 다각화되고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접근 시각이 '분단-통일'의 특수론에서 '분리-통합'이라는 일반론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다. 〈사회평론·2만5000원〉

어린이 책

▲목기린 씨, 타세요!=목이 아주 긴 목기린 씨가 화목 마을로 이사 오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경쾌하게 그린 의인 동화. 목기린 씨를 둘러싼 화목 마을 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따라가며, 어린이들 스스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바람직한 태도를 배울 수 있다. 〈창비·7500원〉



미술관이자, 런던 대영 박물관, 파리 루브르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소개한

다. 많은 작품을 보여 주기보다는, 한 가지 작품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이에 담긴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공주니어·1만2000원〉

▲사랑할 수 있는 용기=봄날 피는 꽃처럼 멋진 사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준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 싸우고 나서 화해하자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용기, 소중한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길을 찾아나

가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림이야기·1만2000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당찬 여성 이야기=여성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깨고, 남성보다 더 당당하고 적극적이며 지혜로운 여성들의 이야기를 모았다. 마고할 미부터 뿌지직 자매에 이르기까지 남성들과 어깨를 겨루며 당당히 살아가는 씩씩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유쾌한 웃음과 해학을 바탕으로 펼쳐진다. 〈미래아이·1만4000원〉

혈통, 고향에 대한 사유

소설가 한강으로 이어졌다. 바닷가 모래미마를 신동은 소설가 이승우의 출생지다. 모래미 앞바다에는 가슴앓이섬이 있다. 전날 밤, 소설에서 읽었던 정황과 인물들의 심리가 고스란히 전달되어 왔다. '섬섬'을 가까이 보면서 한국전쟁의 억울한 죽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이창준 소설 '축제'의 배경인 소동섬에 가기 전, 무지개가 하늘 높이 뿔뿔 때 모두 환호했다. 소설가 송기숙은 억울한 아랫자락 용산면 포곡리가 고향이다. 그의 '자랑골의 비가'를, '녹두장군'을 읽으며 의분에 찡찡한 지난날을 기억했다. 이들은 한국 문학의 거목들이 되었다. 그들의 뿌리인 장흥. '관서별곡'의 기봉 백광훈과 옥봉 백광훈의 고향 장흥.

"그리고 사소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당신에게 많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스쳐 지나간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진정한 삶을 살 수 없으며, 아무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 기만의 삶으로부터 몇몇 단편적인 조각들이 내게 되살아온다." 내게 강렬하게 다가오는 이 문장들. 나는 여지껏 고향을 스쳐 지나가는 한낱 나그네였다. 이 복잡다단한 도시의 변방을 떠돌고 있는 나의 정신이며 문화가 된 혈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한다.

문학인의 고향, 문학특구 장흥에 올해 4회를 맞는 '한국문학특구포럼'이 열린다. 장흥과 호남의 지역성을 넘어 한국문학의 메카가 된 장흥. 장흥에는 문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장흥 문인들을 빠짐없이 발굴해 문학의 혈통을 일으켜 세운 소설가 김석중이 있고 한국 시문학의 새로운 혈통을 키워내고 있는 시인 이대흠이 있다. 그들은 문학의 혈통을 구슬처럼 이어주는 인도라망이다. 그 인도라망이 문학의 고향을 지킨다.

파트릭 모디아노는 자신의 기억을 엮어 소설 '혈통'을 썼고, 독자는 '혈통'을 읽으며 자신의 고향·피붙이와 정신·문화적 혈통에 대해 깊이 사유하게 된다.



김현주 1993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가입문의 1855-0000

hello

헬로tv, 세계 최초 UHD 방송 시작!

헬로tv UHD 방송 가입하시고 24시간 초고화질 세계를 마음껏 경험하세요!

- UHD 24h 24시간 UHD 전용 채널**
유맥스(UMAX, ch.1)에서 다양한 UHD 콘텐츠를 시청가능
- UHD VOD 시청**
초고화질의 UHD 콘텐츠를 VOD로도 시청가능
- 16만 편의 영화·드라마 VOD**
국내 최대 VOD콘텐츠를 보유한 헬로tv와 동일하게
-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삼성UHD TV에서 스마트TV앱만 설치하면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 2014년에 가입하시면 가입 후 1년간 UHD 이용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헬로tv UHD 상품은 '14년 3월 이후에 출시한 삼성의 UHD 스마트TV에만 지원됩니다. '14년 3월 이전 출시 상품 구매자께서는 삼성전자에서 판매하는 '14년형 에버루닛셋을 통해 시청가능하오니 이 부분은 삼성전자에 문의주세요. (삼성전자 고객센터: 1855-1008)



헬로tv UHD 방송이란? Full HD 보다 4배 이상 화질이 좋은 초고화질 방송 서비스

www.cjhellovision.com